

# ‘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시행 앞두고 시범기간 확대 검토

과기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중 이번 주 연기 여부 최종결정 계획”

개인정보 침해·기술 안정성 논란 시민단체 반발, 인권위 ‘신중’ 권고 안면인식 성공률 60% 문제 지적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범 운영 기간 확대를 위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정책이 알려진 때부터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정책을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18일 통신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와 유통업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얼굴 인식을 통해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

추가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공식 의견을 받아 연기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대포폰 근절 등을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정책이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패스(PAS

S)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절차는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

조해 동일한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체 정보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인증 결과 역시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만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마감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이를 제 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제도 도입에 신중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안면인식 성공률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 개월 간 필드 테스트에서 인식률을 80%까지 올리기는 했으나 신분증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환경이 변수로 작용해 인식률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방안 확대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가운데 시스템 오류 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편리한 쇼핑 검색” vs “카톡 대화 보조”

(네이버)

(카카오)

### 네카오 AI 기술 체험

양사 ‘AI 기업 전환’ 선언 플랫폼 구조서 차이점 뚜렷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의 핵심 플랫폼에 AI 기능을 빠르게 결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AI 기업’ 전환을 선언했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 경험은 상당히 달랐다.

기자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니 네이버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강점을 보였고,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대화 보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네이버 AI는 검색 과정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가장 컸다. 기자가 네이버 앱에서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 보자 기존처럼 단순한 링크 목록이 나열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 상단에 핵심 정보를 정리한 형태의 콘텐츠가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러닝화 추천’을 검색하자 브랜드별 인기 제품과 가격대 정보, 리뷰가 요약된 형태로 먼저 정리됐다. 이어 관련 쇼핑 상품과 콘텐츠가 함께 노출됐다.

특히 쇼핑 검색에서 AI 기능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모습이었다.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추천 상품과 인기 모델을 묶어 보여주며 탐색 과정을 줄여주는 느낌이 있었다. 단순히 검색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AI는 카카오톡 환경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컸다. 기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I 기능을 사용해 보니 긴 대화를 요약하거나 대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검색하는 기능이 눈에 띄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 요약 기능을 사용하자 긴 대화 내용이 핵심 문장 중심으로 정리됐다. 수

십 개 메시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대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채팅 중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 결과나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다. 별도의 앱을 실행하지 않고 카카오톡 내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 AI는 검색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따로 실행하기보다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플랫폼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 탐색이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AI 기능 역시 정보 탐색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플랫폼인 만큼 대화 흐름을 보조하는 AI 기능이 중심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KT, AI 기반 피싱 의심·차단 시스템 구축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협력 올해 적용... 총 9822건 탐지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추출 체계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피싱 의심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실제 피싱 피해 신고 건수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추출한 의심번호와 연관된 번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KT로부터 공유 받은 피싱 의심번호를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회

선을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통신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싱 의심번호는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되며 이후 7일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KT는 올해 1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KT망 기준 총 9822건의 피싱 의심번호를 탐지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피싱 의심번호 사전 탐지와 망 차단 협력 이후 경찰에 접수된 전체 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시행 전·후 6주 기준 1만496건에서 7843건으로 약 2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44%, 대출 방자형 보이스피싱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피싱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사후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번 협력으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해 피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 SKT, ‘1인 1 AI 에이전트’로 업무 혁신

지원 시스템·교육 로드맵 마련

SK텔레콤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AX’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사 차원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업무 자동화를 넘어 구성원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업무 혁신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은 개발 직군뿐 아니라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특화된 AI를 만들 수 있도록 ‘1인 1 AI 에이전트’를 목표로 지원 시스템과 교육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코딩 경험이 없는 구성원도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플랫폼을 제공한다. 범용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에이닷비즈’, 마케팅과 데이터 추출에 특화된 ‘폴라리스’,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과 코딩을 지원하는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포함된다. 구성원은 자연어 입력이나 모듈 조합 방식으로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AX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AXMS(인공지능 전환 관리시스템)’도 가동했다. AXMS는 구성원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와 진행 상황, 피드백을 공유하고 이를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SK텔레콤은 AX 아이디어 공모와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작된 ‘AX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약 18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는 패스트트랙



SKT 구성원이 전용 플랫폼 ‘AXMS’를 활용해 업무 현장에 적용할 AI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 /SKT

로 선정해 올해 3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구성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론티어 교육과 디자인 캠프, 부트캠프 등 단계별 교육을 통해 실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상반기에는 해커톤을 열어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추가 AX 프로젝트 선정과 성과 포상을 통해 사례 확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로봇지능 기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시연

NC AI,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공략

NC AI가 로봇 지능 핵심 기술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NC AI는 16일 자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WFM 학습과 검증에 수행하고 주요 로봇 조작 태스크에서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FM은 로봇이 현실 세계의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도록 돕는 로봇 AI 핵심 기술이다.

이번 모델은 영상 생성과 추론 단계를 거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잠재공간 정보에서 바로 행동을 생성하는 구조를 적용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동 예측 정확도를 개선했다.

성능 테스트에서는 로봇 팔 조작 등 24개 고난도 태스크를 기준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대비 약 70% 성능을 확보했다. 실제 현장 적용과 연관된 상위 18개 핵심 태스크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코스모스 등 최고 성능 모델의 약 80%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또한 NC AI는 글로벌 모델 파인튜닝에 필요한 GPU 자원의 약 25% 수준만으로 학습을 수행해 자원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WFM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반도체 등 제조 산업에 특화된 로봇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